

『竹川集』 解題

朴性鳳*

目次

1. 『죽천집』의 서지사항과 내용 특징
2. 『竹川集拾遺錄』과 『竹川先生文集續編』
3. 저자 죽천 박광전 약전
- *. <부> 증보 죽천 관련 연보 초

1. 『죽천집』의 서지사항과 내용 특징

『竹川集』은 문강공(文康公) 죽천 박광전(朴光前, 1526~1597)선생의 문집으로 현행 최근 한적본은 보성 복내 죽곡정사에서 안규용(安圭容, 판권은 安鍾宣명의)이 1930년에 출간한 것이다. 처음 원집(윤봉조 序, 1739와 박내석 跋, 1754) 1책이 초간된 후, 증보 교정 재판한 중간(重刊, 송치규 序·박형덕 跋, 1809) 합 2책이 보성 용산서원에서 나왔다. 이어 속집(기정진 跋, 1875·오진영 跋, 1924)이 이루어지고 다시 원·속집 합 9권이 목판 201면 4책으로 증산(增刪) 간행되었는데(안규용 跋, 1929) 그 초·중·삼간본의 서지(書誌)사항은 아래와 같다.

<初刊> 1책 朴鳳錫 편 : 다음의 중간본에 「己未(英祖 15年 1739)仲春 坡平 尹鳳朝 序, 崇禎後再甲戌(英祖 30年 1754) 5代孫 乃錫跋」이 보임.

<重刊> 증보 교정 재판 木板本 寶城 龍山書院 간 4卷 2冊 : 四周雙邊, 20.8 x 13.7 cm,

* 경북대학교 초빙교수, 영남문화연구원장.

有界, 10行20字, 小字 雙行, 上下向 四瓣花紋 黑魚尾; 29.7 x 18.9 cm
表題: 竹川集

重刊序: 崇禎四己巳(純祖9년 1809)五月上浣 恩津 宋穉圭 序
초간본의 「尹鳳朝(舊)序, (朴)乃錫(原)跋」 합록
跋: 甲戌後五十六年己巳(1809)七代孫 馨德 謹跋

내용 卷之一 賦, 詩, 疏. 卷之二 書. 卷之三 雜著, 記, 墓誌. 卷之四, 附錄,
年譜, 賜祭文, 龍山書院請額疏, 禮曹
啓目, 行狀, 遺事, 墓誌銘, 墓碣銘, 墓
表

所藏: 奎章閣(서울대), 高大, 藏書閣(정신문화연구원), 陶山(안동대), 延大,
成大, 경북대 研中堂文庫 외

<續集> 1책 1), 三刊本の 卷9 末尾에 「乙亥(高宗12년 1875) 六月 奇正鎭

- 1) 선후 문집의 序跋을 종합해 볼 때, 속집은 오류가 많아 널리 퍼지 못한 듯 흔치 않다. 다행히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속집이 있지만 서지사항부터 애매하여 요령을 잡기 어렵다.

竹川先生文集: (并續集 朴光前 著 木版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1809 4卷 續集合

3冊: 四周雙邊, 半廓 20.0 x 18.7 cm. 有界. 10行20字, 注雙行. 二葉花紋魚尾; 29.6 x 18.9 cm 重刊序: 崇禎四己巳(1809)...宋穉圭 序: 己未(1739)...尹鳳朝

跋: 崇禎後再甲戌...朴乃錫 跋: 己巳(1809)...朴馨德

즉 중간본과 초간본의 서발이 혼합 나열되어 그런 것이다. 게다가 정작 속집에 관해서는 「續刊跋: 丙戌(1826)...奇正鎭」을 들고 있는데 여기서 고갑자 연대 大淵獻(亥)을 놓치고 병술일을 해로 환산한 착오도 저지르고 있거니와 「歲今年 迫八十」이라는 노장에게 「將有續刊之役」을 위해 받은 「乙亥(高宗12년 1875) 六月 丙戌 奇正鎭 續集跋」로 미루어 속집이 나오고 합 3책이 된 것은 당연히 1875년 내지 그 후일 수밖에 없었다.

참고삼아 규장각 소장 동일본의 서지 사항을 들면 다음과 같다.

奎 7167--1-3 竹川先生文集 / 朴光前(朝鮮) 著. [刊地未詳]: [刊者未詳]; [純祖9年(1809)]: 4卷, 續編, 合3冊,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葉匡郭: 20.1×13.8 cm, 有界, 10行20字, 版心: 上花紋魚尾; ; 29.8×19 cm.. 序: 崇禎四己巳...宋穉, 尹鳳朝. 原集卷末: 崇禎後再甲戌...朴乃錫跋, 甲戌後五十六

(續集)跋, 甲子(1924) 中夏日 吳震泳(續集)跋」이 있음.

所藏 : 국립중앙도서관 · 고려대, 영남대, 안동대 <후본>, 藏書閣(정신문화연구원) · 연세대, 嶺南大 味山文庫 <별본>

<增刪 三刊> 원 · 속집 합편 증산 목판 9권 4책 寶城 福內 竹谷精舍 刊(1930)²⁾ : 29.8×19cm 左右雙邊 半廓: 20.1×13.8cm 有界 10行20字 註 雙行 版心: 上花紋魚尾 己巳(1929) 八月 安圭容 重刊跋(舊序 · 舊跋 수록) 3)

內容 목차 아래 참조

所藏 : 奎章閣(서울대), 高大, 藏書閣(정신문화연구원), 陶山(안동대), 延大, 경북대 외(以上 4冊), 成大(죽곡정사 석판본 5책, 장서각에도 『유

年己巳…朴馨德跋. 續集卷末: 奇正嶺跋. 集部 別集類 一般

M/F84-16-18-E 광화일번호 SGP-180-023368 마스터번호 23308

한편 국립도서관, 안동대, 규장각, 고려대 등에 전하는 『竹川先生文集續編』이 다 동일판 속집인데 <아래 본문 참조>, 藏書閣(정신문화연구원)과 嶺南大 味山文庫, 연세대 등에는 이들보다 앞서 편간된 「崇禎紀元後四丙辰<哲宗7년 1856> … 後孫 重洪謹序」의 또 다른 『竹川集(續編)』이 있어 역시 아래에서 검토하였다. 영남대에는 유일하게 이 속편 先後 간본과 후술하는 『박씨7현거의록』의 초간(1857) 희귀본까지 온전하게 갖추고 있어 최상급 고서 소장처의 한 진면목을 보는 듯 부럽기도 하다.

2) 1920년대에 들어 후손 朴泰璿 朴佑龍 朴佑淑 등이 속집의 교정과 증보 작업에 힘써 1924년 吳震泳의 교열을 받고 1929년 삼간 정본을 安圭容 편집으로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3) 다음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사항 및 DB정리는 편자도 간사지 · 간사자 미상도 모두 잘못 되었는바, 중간본(1809) 것을 그냥 따온 듯 하다. 박재환은 그 때 편자 청문자로 19세기 전반에 활동한 분이고, 출판소와 발행인은 본문에 나와 있듯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竹川先生文集 : 并附錄 朴光前 著 ; 朴在煥 編 木板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1930, 9卷4冊 : 四周單邊, 半廓 20.0 x 13.8cm. 10行20字, 註雙行, 上二葉花紋魚尾 ; 29.5 x 19.0 cm」

근자의 후문에 의하면 지난 날 약 200명의 공공요원이 취로사업차 고서정리에 투입되어 오류가 많이 생긴 것이라 하니 군사문화의 시정 복구에는 앞으로도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다.

목』을 합친 5책본이 또 있다)

한편 위 삼간본은 근자에 민족문화추진회를 비롯 몇 출판사에서 양장 보급판으로 복간되고,⁴⁾ 따로 번역본이 편간되기에 이르렀는데,⁵⁾ 이 삼간본의 내용 편목은 다음과 같다.

- 卷首 賜祭文 2篇, 重刊凡例 1篇
- 卷1 賦17篇 詩29首 *正心賦·大丈夫賦·獨寢不愧衾賦·夢周公賦·致思如掘井賦·鮑石亭賦 등과 與門族展省水多院移坐廣灘川上述懷 八首 詩 등
- 卷2 疏2篇 *上王世子撫軍時書 외
- 卷3 書10篇 *上退溪先生問目(朱子書節要 疑義) 등
- 卷4 雜著11篇 *壬辰舉義時檄文·天心仁愛人君論·項伯翼蔽沛公論 등

-
- 4)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 39 民族文化推進會 [편]. [영인판] 서울 : 民族文化推進會, 1990, p.626 ; 27cm 중 『竹川集』 (退溪門徒) 『陶山及門諸賢集』 韓國學文獻研究所編. 1-3. 1책 중 竹川集, 影印本. 서울 : 亞細亞文化社, 1982. 26cm. 『李朝中期思想叢書』 『韓國歷代文集叢書』 601, 『竹川先生文集』, 서울 : 景仁文化社, 1997, p.413 ; 23cm. 따로 吳震泳 (續集)跋 말미에 짚막한 再跋이 삽입되고, 『竹川先生遇溪記 初本』 등이 영인 첨부됨(pp.413~437). 또 『竹川問答』 1冊 藏:陶山(西), 『竹川先生遺墨』 朴光前 著 1冊 藏:國立도서관 등이 『韓國古書綜合目錄』(국회도서관, 1968)에 소개되어 있고, 『竹川先生 遇溪記 草本』 1책(朴佑龍 소장)이 1960년에 자가 영인 출간되기도 하였다. 참고로 『竹川先生遺墨』 木板本 己巳(1929)孟秋 竹谷精舍 開刊 1冊 (20張 ; 31.7 x 19.8cm) 과 『竹川先生遺墨』, 朴光前 書 ; 安鍾直 刊編, 拓本, 寶城 : 竹谷精舍, 1930, 20張 ; 33.6 x 20.8cm, 刊記 : 歲在庚寅(東七十翁書(1590) 두 책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 한편 장서각에는 『竹川先生文集』 仁義禮智 4책에다 제 5책 信으로 유목편을 합간 장책한 것이 전해지고 있다.
- 5) 『국역 죽천집』은 안동교(전남대박사)가 정밀하게 역주를 진행시키고 필자 등이 교열작업에 참여하여 2003년 서울 신조사에서 간행 예정이다. 안박사는 누대 한학 대가의 직손답게 박학 성실한 위에 이미 『국역 은봉전서』(1), 보성문화원, 2002 등이 방면의 성과물을 낸 경력을 살려 중흥으로 주석을 가하여 밀도 있는 결실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더 시간과 노력을 쏟은 연구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따른 공들인 교정과 서평이 출간되기를 기다려야 하겠다.

卷5 記2篇 *遇溪記 외

跋2篇 *朱書節要序後識 외

墓誌1篇

卷6~9(附錄) : 年譜·行狀·謚狀·神道碑銘·建院通文·山仰亭上樑文·
竹川亭記 등

이제 『죽천집』의 특징을 최근 연구 성과를 통하여 몇 가지 요약하면 먼저 詩, 賦, 記 등 문학 작품은 한국 문학사에서 아직 거론된 적이 없는 새로운 자료임을 알려준다. 즉, 시 12편은 장편 교유시를 비롯, 대체로 기교보다는 유교적이고 성리학적인 내용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賦와 記는 당시 16세기 호남문학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문학사의 중요 작품들로 기록될 만 하다. 특히 賦 작품은 매우 드문 山水遊記를 비롯 대개 심성수양에 대한 내용, 중국의 고시를 다루면서 교훈적인 삶을 제시하는 내용, 나아가 사회 비판적인 모습 등 세 가지 면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가운데 심성수양에 대한 내용은 주자학의 문학적 수용과 관련되어 퇴계, 미암 등의 문학과 비교할 만 하다.

죽천의 문학 가운데 가장 큰 성취를 보인 작품은 「遇溪記」이다. 여러 명현들이 칭찬하였듯이 매우 짜임새 있는 산수유기이며, 16세기 중·후반의 중요한 작품으로 문학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⁶⁾

다음 학문·인품을 드러낸 자료로서 陶庵 李緯는 「墓碑銘并序」에서 “선생은 실천에 독실했다”고 하였으며, 「銘」에서 또 “퇴도 退溪의 학은 실로 주서절요가 근본인데 퇴도께서 자기를 위하는 학이라고 했을 때, 공이 일어나 절하며 감당하였다”고 했다. 竹川의 학문·학풍을 대략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어 유생들의 「請謚疏」에서 “朴光前의 학은 李滉의嫡傳이다”하고 壬辰·丁酉倭亂에 두 번 義兵將이 되어 君國에 사명을 다하였으며, 또 “문인에서 牛山 安邦俊과 文緯世와 장자 朴根孝등 義

6) 김대현, 『退溪學과 韓國文化』 32호(경북대 퇴계연구소, 2002예정) 및 박성봉 편 『朴竹川研究論叢』 논문 결론

節士가 나왔으니 모두 선생의 遺德이다”。 죽천은 일찍이 천하의 인심을 얻는 것이 인간의 대도요, 천하의 大功이다. 형적보다도 근본은 마음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英雄豪傑들에서 비유한 글이 많거니와 이는 모두가 왜놈의 나라침략에 대하여 민심을 촉발하여 영웅적 활동을 기대하는 經世的 實學에서 나온 것으로 竹川의 진면목이 찾아진다. 그의 道學과 節義는 모두 민심의 우국적 자각을 흥기하는 실천에 있었으니 그것이 그의 평생 偉業이었다.⁷⁾

또 우산 안방준의 행장에서 호남 5현을 논한 글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거니와 다음은 그 담론의 일례이다. 즉, 호남의 5현과 죽천의 행실에 관하여 단순한 실천의식으로서 4현의 업적과 선생의 행실을 비교 평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의 실천정신은 부모에 대한 효도, 출사에 있어서 공사의 구분, 한결같은 의리의 실천, 그리고 국난을 당하여 구국의 대열에 앞장섰던 의병운동 등은 다른 4현들과 다른 실천적 의지라고 할 것이다. 이는 벌써 8세 때 지은 詩에 나타난 바, 그 깊은 뜻이 일생의 실천을 일관되게 꿰뚫고 있음을 알 수 있거니와 이제 현대적 입장에서 호남 5현의 정신을 계승하고 훌륭한 점을 더욱 배우고자 할 때, 하서의 학문 조행 절의 문장과 고봉의 의론의 명쾌함과 일재의 강의 불굴함, 미암의 박학 다식함에, 죽천의 지론과 천리의 독실함이 함께 추구된다면 더욱 바람직한 호남의 정신 내지 완전한 덕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진다.⁸⁾

한편 죽천 학문의 요체가 되었던 『주자서절요』(14권 8책 사본)에 관해서 류탁일(부산대 명예교수)은 퇴계 당시에 필사된 죽천본 『회암서절요』(15권 8책 사본)을 발견했다면서 중국문헌이 어떻게 전래되어 변용·전개하였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하나의 실례를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철저한 실사와 대조에서 얻은 자료를 근거로 문헌계보를 설정함으로써 「외래

7) 유명종, 동상 책들의 글

8) 오종일, 동상 책들의 글

문헌의 한국적 수용과 전개」라는 큰 주제에 이러한 문헌의 개별적 기초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우기도 하였다.⁹⁾

2. 『竹川集拾遺錄』과 『竹川先生文集續編』

『죽천집』은 위 重刊 합집 외에 또 『竹川集拾遺錄』 1책(아래에 해제, 경북대 研中堂文庫 소장)이 나왔으며, 따로 『竹川先生文集續編』 1책이 국립중앙도서관과 안동대 등에 소장(원 퇴계 중가의 上溪光明室文庫에서 이관)된 것이 있고, 장서각과 연세대, 영남대 味山文庫 등에는 동 『續編』이 별본 『죽천집』으로 전해지고 있다.

『죽천집습유록』은 1~3권 1책으로 고종 19(1882)년에 발간된 (간행지 미상) 목활자본이다. 이병규가 서문을 짓고, 죽천의 10대 손인 박의현이 발문을 썼다. 제 1권에는 序를 비롯하여 詩, 疏, 序, 簡을 수록하고 제 2권과 3권은 부록 상·하편으로 되어 있다.¹⁰⁾

1권에는 「次松汀金公(景秋)觀水軒韻, 辭翊衛疏, 冬栢亭序, 答白直長(承宗)書」 등이 있는데, 이 글들은 원집에 빠진 것을 수습하여 현행 『竹川集(속집 표시)』에 수록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冬栢亭序」의 경우 권5 記에 「冬栢亭記」로 나오고 「答白直長(承宗)書」는 권3 書에 「答白誠之(承宗)」로 보여 題名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부록편인 2권과 3권은 「龍山書院重修上樑文」을 제외한 대부분의 글이 현 『竹川集』에 보이지 않는 별개 내용의 것들이다. 이는 죽천선생이 쓴 글이 아니라 후세 사람들이 선생을 기려 쓴 것, 또는 선생을 주향한 용산서원의 운영이나 문하의 학자

9) 류탁일, 동상 책들의 글

10) 3卷1冊 : 四周單邊, 22.5 x 15.8 cm, 有界, 10行20字, 註 小字雙行,

上下內向四瓣花紋黑魚尾 ; 30.1 x 19.9 cm. 表題 : 竹川集

序 : 崇禎紀元後五壬午(1882)韓山李炳珪謹序

跋 : [木村懿鉉謹跋

刊記 : 崇禎紀元後五壬午(1882)開刊

들에 대한 것이다.

2권은 부록의 상편인데, 「語錄, 東儒師友錄, 退溪門人錄, 禮葬時告由文, 禮葬時抵先生長子(根孝)書, 答安隱峯(邦俊)書, 山陽誌, 湖南節義錄, 代湖儒請刊朱書節要書, 院額時諸賢簡牘, 爵謚諸賢簡牘, 簡牘跋, 上領議政沈公(象奎)書, 瞻斐堂記, 恢明堂記, 龍山書院重修上樑文, 刊集時諸賢簡牘, 山陽三綱傳」 등으로 되어 있다.

「語錄」은 우암 송시열이 쓴 것으로 죽천선생이 퇴계 이황에게 사사하여 성리학을 크게 증진하였다고 하였고, 「東儒師友錄」은 현석 박세채가 죽천선생의 연보를 간략하게 쓰면서 퇴계로부터 『朱子書節要』를 받아 정진한 선생의 충효와 학행을 기린 것이다. 「退溪門人錄」은 靑壁李世澤이 쓴 것으로 선생이 보급한 『주자서절요』가 호남에 영향을 끼쳐 임란 때 의병을 일으킬 수 있었다고 하였다. 「禮葬時告由文」과 「禮葬時抵先生長子(根孝)書」는 선생의 장례 때에 장남이 주자가례에 입각하여 쓴 글이다. 「答安隱峯(邦俊)書」는 尹燾(1571~1639)의 글로, 1631년 안방준이 선생을 기리기 위한 서원 건립 의견을 물은 데에 대한 답변이다. 「山陽誌」(명현편에 수록된 글)과 「湖南節義錄」은 선생의 업적을 기록한 부분을 인용해 놓은 것이다. 「代湖儒請刊朱書節要書」는 손자 朴春長이 조부가 퇴계로부터 『주자서절요』를 받아 정진하여 이것이 호남에 영향을 끼치게 됨으로써 임란 때 의병을 일으킬 수 있었다고 하여 이를 널리 간행하여 보급할 것을 여러 지방 제현에게 요청한 글이다. 「院額時諸賢簡牘」과 「爵謚諸賢簡牘」은 선생을 배향한 용산서원에 사액과 시호를 제수받는데 도움을 준 여러 유사들의 글과 이에 감사하는 글을 모아둔 것이다. 「簡牘跋」은 위의 諸賢簡牘에 대해 金在龜가 쓴 跋文이며, 「上領議政沈公(象奎)書」는 사액을 받는데 힘써 준 영의정에게 선생의 후손 박중홍이 올린 글이다. 「龍山書院重修上樑文」은 용산서원을 지어 상량할 때 윤중의가 쓴 글이며, 「瞻斐堂記」와 「恢明堂記」는 선생이 후학을 양성하던 학당에 대한 감회를 박중홍이 적은 것이다. 「刊集時諸賢簡牘」은 죽천집을 간행 보급한데 대해

관련 제현이 보낸 축하의 글을 모은 것이다. 「山陽三綱傳」은 우의정 趙寅永이 숙종, 순조에 이어 헌종에 이르러 선생에게 관작을 추증한 사실을 적은 것이다.

3권은 「同門錄, 從遊錄, 同倡錄, 門人錄, 建院有司錄, 院長錄, 拾遺錄跋」로 구성되어 있다. 「同門錄」은 퇴계 문하에서 죽천선생과 동문수학한 학자들의 명록이며, 「從遊錄」은 죽천선생이 교유한 학자들의 명단이다. 「同倡錄」은 임란 때 선생이 의병을 창의할 때 참여한 인물들의 명부이며, 「門人錄」은 선생의 문하생들의 명록이다. 「建院有司錄」은 용산서원을 처음 세웠을 때 서원관리에 참여한 생원·첨정·유학·주부·첨지·진사·찰방·진사 등의 명단이며, 「院長錄」은 용산서원의 원장을 역임한 인물들을 기록한 것이다. 「拾遺錄跋」은 박의현의 본 책 말미 발문이다.

한편 상기 2, 3권은 일단 본 책의 특징이 되는 부분으로 일면 오늘 후학 연구자에게도 상당히 흥미를 끄는 자료가 될 수 있겠다. 하지만 1929년 당시 현행 三刊 4책 본으로 증산 간행되면서 유보 탈락된 부분임을 생각하면 자료 이용에 신중한 검토가 요망됨은 물론, 소위 진순성이 의심되는 부풀림이나 위작은 오래 가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도 중간 당시 편찬에 참여한 선비 학자들의 절제된 어떤 엄정성은 후인에게 좋은 본보기를 주었다고 하겠다.

다음은 국립중앙도서관과 안동대, 고려대 등에 전하는 『竹川先生文集續編』에 대해서 대강을 살펴보아야겠다. 안동대학교 도서관발행(2000, 안동) 『고서해제』(1)에는 먼저 서지사항을 들고,¹¹⁾ 이어 다음과 같은 해설을 부치고 있다.

「박광전(朴光前) 시문집의 속집이다. 속집 역시 부록으로 죽천(竹川)이

11) 『竹川先生文集續編』(안동대, 上溪光明室文庫, 古上 810.819 죽813)
木版本. - {發行事項不明} 1冊(42張); 30 x 19.4cm 上下單 左右雙邊 半匡; 20.6x13.8cm.
有界, 10行21字, 註雙行, 上下向二葉花紋魚尾

배향(配享)된 용산서원(龍山書院)의 사액회계(賜額回啓)를 비롯하여 대신헌의(大臣獻議)·의사사실(議諡事實)·증이조판서회계(贈吏曹判書回啓)·청시회계(請諡回啓)·시장(諡狀)·전라경상충청삼도유생상언(全羅慶尙忠淸三道儒生上言)·퇴계이선생주자서절요서후지(退溪李先生朱子書節要序後識)·병풍팔첩시(屏風八帖詩)·수암권선생완식원규(遂菴權先生完式院規) 등이 수록 되어있다.»

그런데 여기서 속편의 발행 년은 아무데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아래 장서각본 등이 철종대 간본(「崇禎紀元後四丙辰<哲宗7년 1856> … 後孫重洪謹序」)인 것과 내용 변화 기타를 견주어 「乙亥(高宗12년 1875) 六月丙戌 奇正鎭(續集)跋」의 글을 받은 해 내지 그 얼마 뒤에 편간 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안동대 도서관에서 동 속편 복사본을 떠다가 그 내용 목록을 삼간 『죽천집』과 대조해 보니 몇 개 외에는 대부분 원집 연보, 諸家기술 등에 언급만 있고 빠진 글들이다.

「目錄 卷之一

龍山書院 賜額回啓 遺漏元集 故附于此
 請 地贈回 啓 禮曹判書曹鍾永,
 請議大臣回 啓 吏曹判書徐能輔,
 大臣獻議 領議政南公轍, 左議政李相璜,
 議諡事實 領議政沈象奎, 左議政洪奭周,
 贈祭酒回 啓 吏曹判書朴綺壽,
 請爵諡事實 左承旨金興根, 都承旨朴岐壽, 禮房承旨尹聲大,
 贈吏曹判書回 啓 吏曹判書金箕殷,
 請諡 筵稟 禮曹判書徐熹淳,
 諡狀 右議政趙寅永製進, 삼간본 수록
 全羅慶尙忠淸三道儒生上言, 삼간본에 수록된 「請諡疏」인듯
 上領府事南公轍書, 삼간본 수록
 上右議政趙寅永書,
 上領議政南公轍書,

再上領府事南公檄書,

退溪李先生贈先生朱書節要序,

退溪李先生朱子書節要序後識, 삼간본 수록

屏風八帖詩 有手筆。已上三首 遺漏元集 故附于此, 「與門族展省水多院移
坐廣灘川上述懷」八首로 제
목이 바뀌어 삼간본 수록

遂菴權先生完式院規, 「齋憲」이란 이름으로 삼간본 수록

龍山書院祭享祝文, 삼간본 수록

이로써 보면 서원에의 은진, 시호내림 절차와 상서, 거기에 대한 회계 및 시장, 주자서절요 序후지, 병풍팔경, 완식원규 등과 같이 6~7개 외 삼간본에는 많이 실리지 않았던 글들이다. 이는 죽천 자신의 글이 아니고 후세 사람들이 선생을 기려 쓴 원문서 또는 선생을 모신 용산서원의 운영이나 문하의 학자들에 대한 것이다. 위 습유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929년 당시 현행 3刊 4책 본으로 증산 간행되면서 유보 탈락된 부분이 많다고는 하지만 소위 眞純性이 의심되는 부풀림이나 위작 때문은 아닌 듯하다. 자료의 장황 번잡을 피하기 위한 절제에 연유한 것이 습유록의 경우와 다르다고 할 것이며 역시 삼간본의 엄격한 수월성의 일면을 보여 준다 하겠다.

그러면 끝으로 장서각, 연세대 및 嶺南大 味山文庫 수장의 속편 별본에¹²⁾ 대하여 살펴보자. 전반적으로는 위에서 본 『竹川先生文集續編』과

12) 이 책에 대한 장서각 도서목록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D3B 165 『竹川先生文集續編』, 朴光前(朝鮮) 著, 木活字本 [哲宗7(1856)] 1冊.
四周雙邊, 半郭20.7 × 13.7cm, 10行20字, 上下混入花紋魚尾; 29.3 × 19.3cm
表紙書名: 竹川集序: 崇禎紀元後四丙辰(1856) … 後孫重洪謹序
마이크로필름 릴; 35 mm MF35/5302

한편 嶺南大 味山文庫에는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위 책과 동일한 『죽천집 속편』이 있다. 표지 서명 표지가 다르고 서지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말미 결락이 없어 보다 온전한 것은 천만 다행이라 하겠다. 다만 연대 환산은 1860이 아니고 1856년이 옳다.

같은 성질의 것이지만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 우선 표지 書名이 『竹川集』으로 되어 있으며 철종 7년(1856)의 後孫 重洪謹序가 보여 실질적인 편자와 앞의 속편본보다 근 20년 일찍 나온 것임을 알려준다. 그리고 <장서각본>에는 결락된 발문 2개가 味山文庫本에 의하여 「[朴]正烈, [朴]正錫」의 것임이 확인되는데, 모두 선생에 대한 正卿 증직과 文康 賜諡에 고무된 편자 박중홍의 선조 현창 업적과 계획을 적극 치하하고 있다.¹³⁾ 실제로 박중홍은 이듬해 철종 8년(1857)에 또 하나의 편저 『박씨7현거의록』 초간본을¹⁴⁾ 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어쨌든 이 선간 속편본이 위 후대 안동대 소장본 및 원 삼간본 등과 대조하여 거기에서는 제외되

『竹川先生文集續編』, 朴光前 著, 木活字本 [刊地未詳] : [刊所未詳], [刊年未詳] 1卷1冊 : 四周雙邊, 半廓 22.9x15 cm, 有界, 10行20字, 注雙行, 上下內向有紋魚尾 ; 29.6x19.2 cm

序: 崇禎紀元後四丙辰(1860)...[朴]重洪, 跋: 崇禎紀元後四丙辰(1860)...[朴]正烈, [朴]正錫
版心題: 竹川集續編, 표지서명: 竹川續編

참고로 연세대 소장본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811.97 竹川先生文集續編 / 朴光前(朝鮮) 著. 木活字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84張 : 四周雙邊 半廓 21.9 x 14.7 cm, 有界, 10行20字, 內向花紋魚尾 ; 29 cm

- 13) 朴重洪(박재환 차자, 박의현 부친, 1802~1870)은 매산 홍직필 등에서 한학을 배우고 문필을 통하여 당대 지명 인사들과 교류하며 위아래 대를 이어 門事에 진력하여 대단한 추진력으로 성과를 올린 인물이었다. 그 때문에 두찬 부풀림도 서슴지 않았던 탓인지 당시는 물론 후대에도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 초판 속편도 그런 흠이 있어 보인다.
- 14) 木活字 初刊本(소장 嶺南大 味山文庫, 慶北大 研中堂文庫<복사본>) 1책(65장) <복사본 기준>으로 29.1×18.4cm 상하 單邊, 좌우 雙邊, 半廓 : 23.1×15cm, 有界 10행 20자, 註 雙行, 版心 : 上 花紋魚尾.
표지: 朴氏七賢學義錄으로 되어 있다.
序1은 崇禎X記紀元後(三)丙午(정조10년, 1786)2월일 안동 金履安(三山齋, 1722~1791) 근서
序2는 肅정기원후 三辛酉(순조원년, 1801)嘉平(12월) 일에 덕은 宋煥箕(性潭, 1728~1807)가 서한 것으로 죽천 8세손 在煥(1769~1841)이 32,3세 때 청문한 듯 보이며 跋은 肅정기원후 四丁巳(철종8년, 1857) 殷春(2월) 후손 重洪 근발로 되어 있다.
자세한 것은 『朴竹川研究論叢』의 『박씨7현거의록』에 관한 몇 가지 해제 참조.

있거나 축약된 것들을 열거함으로써 이 책의 성격 일반을 가늠해 본다.

「請額事實 遂菴 歸樂堂 寒竹堂 急流亭 守虛齋 苦軒諸先生 合議啓請,
請謚坐出謚望事實 應教金在根 檢詳李 우<一垝,
宜謚事實 禮官 趙龍來,

舉函官 和順縣監洪建厚,

贊者 寶城郡守南錫龜,

謁者 碧沙察訪林聖洙,

上領議政沈象奎書. *. 앞에서 다룬 『습유록』에도 올라 있으나 삼간본에는
채록되지 않음

跋

建院時通章 門人 牛山安邦俊. *. 『습유록』에는 없으나 삼간본에 「建院通
文 安文康公」으로 수록됨

龍山書院山長縉紳章甫案,

高峯先生奇大升 朱子書跋,

請刊朱子書 泮儒通文,

道儒上完伯書,

恢明亭記. *. 앞에서 다룬 『습유록』에도 올라 있으나 삼간본에는 채록되
지 않음

退溪先生贈竹川先生五章詩 次韻,

瞻斐堂記. *. 앞에서 다룬 『습유록』에도 올라 있으나 삼간본에는 채록되
지 않음

瞻斐堂原韻,

先賢筆札跋,

遂菴先生權尙夏書. *. 『습유록』에도 올라 있으나 삼간본에는 要點만 언급
됨

丈巖先生鄭 湍書. *. 『습유록』에도 올라 있으나 삼간본에는 要點만 언급
됨

陶菴先生李 緯書. *. 『습유록』에도 올라 있으나 삼간본에는 要點만 언급
됨

歸樂堂先生李晚成書. *. 『습유록』에도 올라 있으나 삼간본에는 要點만 언
급됨

老圃先生趙明鼎書. *. 『습유록』에도 올라 있으나 삼간본에는 要點만 언급
됨

急流亭先生金興慶書, * 『습유록』에도 올라 있으나 삼간본에는 요점만 언급됨

寒竹堂先生申 鉉書, * 『습유록』에도 올라 있으나 삼간본에는 요점만 언급됨

先生金坦行書, 官南原府使 * 『습유록』에도 올라 있으나 삼간본에는 요점만 언급됨

先生閔通洙書, * 『습유록』에도 올라 있으나 삼간본에는 요점만 언급됨

苦軒先生趙鼎彬書, * 『습유록』에도 올라 있으나 삼간본에는 요점만 언급됨

白江先生李敬輿書,

跡齋先生李頤命書, * 『습유록』에도 올라 있으나 삼간본에는 요점만 언급됨

守虛齋先生洪啓迪書, * 『습유록』에도 올라 있으나 삼간본에는 요점만 언급됨

先生金履裕書,

松園先生金履度書,

靜觀齋先生李端相書, * 『습유록』에도 올라 있으나 삼간본에는 요점만 언급됨

市南先生俞 槩書, * 『습유록』에도 올라 있으나 삼간본에는 요점만 언급됨

文谷先生金壽恒書,

性潭先生宋煥箕書, * 『습유록』에도 올라 있으나 삼간본에는 요점만 언급됨

蕉泉先生金相休書,

左議政洪奭周書, * 『습유록』에도 올라 있으나 삼간본에는 요점만 언급됨

吏曹判書金箕殷書, * 『습유록』에도 올라 있으나 삼간본에는 요점만 언급됨

吏曹參判李憲璋書, * 『습유록』에도 올라 있으나 삼간본에는 요점만 언급됨

吏曹參議金興根書, * 『습유록』에도 올라 있으나 삼간본에는 요점만 언급됨

吏曹參判金箕晚書, * 『습유록』에도 올라 있으나 삼간본에는 요점만 언급됨

龍山書院創建時 有司案,

南原府使李象億跋,

享祀時 陳設圖,

朝家 賜祭物謄錄,

移安祝文,

還安祝文,

跋 : 崇禎紀元後四丙辰(1856)九月上澣 進士 [朴]正烈謹跋, * 장서각 소장
본은 이 발문 결락.

跋 : 崇禎紀元後四丙辰(1856)九月上澣 [朴]正錫謹跋 * 장서각 소장본은
이 발문 결락

앞서 안동대 소장 고종년간 속편본도 6~7개 외 삼간본에는 많이 실리지 않았던 글들임을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이는 죽천 자신의 글이 아니고 후세 사람들이 선생을 기려 쓴 원문서 또는 선생을 모신 용산서원의 운영이나 문하의 학자들에 대한 것이라고 하면서 자료의 장황 번잡을 피하기 위한 절제에 연유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본서는 『7현거의록』 초간본의 경우와 더불어 너무 의욕을 부려서 오히려 또 하나의 거친 자료집이 되고 만 셈이다. 물론 자료의 일실을 우려한 나머지 첫 시작 단계의 사정상 이것저것 모은 노고가 적지 않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삼간본 『죽천집』의 엄격한 편찬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요컨대 죽천선생 관련 문집은 전후 6차례에 걸쳐 출판물로 나온 것이 된다. 즉 초간(영조대 1754) 원집 1책 본은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없는 듯, 重刊(순조대 1809) 2책 본을 통하여 짐작하게 될 뿐이고, 이것이 기준이 되어 거기에 더 보충을 기하고자 속편 책들이 철종·고종년간(①본 1856, ②본 1875)에 꾸며졌으며 또 『습유록』(1882) 1책도 출간되었다. 그러나 이 보충 책들은 너무 어지럽고 문제가 많아 1920년대에 들어 정돈작업이 벌어진 끝에 1930년 마침내 3간 4책(『유목』을 포함하여 5책) 본이 간행 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본고는 끝의 3간 본을 정본으로 삼고, 중간 다음에 편간 된 것들을 습유록, 속편 ②본, 속편 ①본 등으로 순차를 거슬러 잡아 대비 검토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역으로 올라가야 선후본 간의 취사 선택 관계 내지 차이 성격 등이 더 잘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속편들은 보충 자료를 너무 끌어 모으고 만들어 상당한 혼란스러움도 없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정본을 꼭 잘 만들게 하는 어떤 자극제가 된 것도 사실인 듯 보인다.

3. 저자 죽천 박광전 약전

저자 죽천 박광전선생은 조선 중종 21년 丙戌(1526) 정월 16일 寅時에 전라도 보성 땅 兆陽里(지금 鳥城面 龍田里)에서 아버지 진사 而諱공과 어머니 朗州 최씨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때는 16세기 조선 유교 사회의 진유 석학들이 무리로 쏟아져 나온 즈음으로 스승이 되는 퇴계보다는 25년 후생이며 율곡보다는 10년 선배가 된다.

윗대 선조는 고려이래 珍原(지금 장성군 진원면)을 본관으로 하는 반족이었는데 특히 6대조 熙中공은 문과에 급제하고 태종대왕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 일본 使行동 내의 현직을 거치면서 천하 명필로 알려졌다. 그러나 만년에 '清白傳家'를 가훈으로 삼아 향리에 退老한 이후에는 후손들이 내리 9대 連 진사로만 지난 전형적 선비 집안이 되었다. 5대조 暉生공이 보성에 정착하게 된 것은 처덕에 인연한 것으로 이로부터 집안이 더욱 번성하였다. 선생의 諱는 光前이며 字는 顯哉인데 아호는 많이 죽천으로 통하였다.

선생은 나면서부터 자질이 뛰어나 5세 때 벌써 어른도 놀란 만한 유교의 진수를 담은 시를 짓기도 하였다. 「도는 하늘로부터 명하는 것이니 어찌 인위로 하는 것이랴 마는 한번 공자의 도를 크게 이루리라」(道自天命豈人爲 爲一大成孔子道)는 연구(聯句)가 그것이다.

10세 안팎에 당시 興陽(지금 고흥군)에 귀양와 있던 洪相公 暹(忍齋)에

게 매일 십 리 길을 멀다 앓고 다니면서 수학하였고 이어 감사에게까지 문명이 인정된 것을 계기로 과거 공부에도 종사하였다. 그러나 『성리대전』 등을 구해 본 다음에는 유학 원전 공부에 정성을 쏟아 『중용』 등에 몰두하면서는 자득한 바가 많았다. 이에 21세에 장차 내조의 공이 큰 장흥 문진사 규수와 혼인하고도 그 이듬해 松川 梁선생(應鼎)에게 수학하는 등 科業과는 다른 길에 매진하였다. 당시 治人에 앞서 修己의 참 공부에 힘을 기울인 선생의 학문 태도는 이후 거대한 물줄기로 화하여 결국은 나라가 유교세상이 되게 하고야마는 원동력의 일단을 보인 것이다.

따라서 이 무렵에는 트인 선비일수록 爲己의 공부에 침잠하고 이를 후생에게 전수하는 것을 지상 과업으로 삼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갔다. 30대에 들어선 선생 또한 보성강 竹川 위에 精舍를 마련하고 天鳳山 大原寺나 遇溪 등을 드나들면서 도학 연수와 강학에 전념하였다. 그러기에 접반사 尹판서(毅中)의 종사관에 천거되었으나 벼슬 나아가기를 마다하였으며, 심지어는 재상으로 복귀한 스승 洪忍齋가 만나기를 원하였을 때에도 출사전 권문 출입을 굳이 사양했던 것이다.

이후 10년 공부를 더한 선생은 41세 때 수 백리 안동 길을 나서 예안으로 당대 최고 석유인 퇴계 이황선생을 찾아 問學하기에 이르렀다. 이미 높은 경지에 이른 이 老사제 사이는 곧 통하는 바가 커서 한 철 공부를 마치고 나자 퇴계는 헤어짐을 몹시 애석해 하면서 사제간 정성 드러베긴 『朱子書節要』 8책을 전별로 주었다. 그리고 작별하는 시를 지어 늦게 좋은 친구를 만난 회포와 석별의 정을 나누기도 하였다.

죽천선생은 퇴계로부터 받은 『주서절요』를 더욱 깊이 연구하여 종신 사업으로 삼게 되고 의문점은 조목조목 적어 퇴계에게 질의한 바, 이에 대하여 퇴계는 소상히 회답하는 편지를 보내오므로써 『節要質疑』라는 귀중한 한 권의 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책은 艮齋 李德弘의 『朱子書節要講錄』과 더불어 密庵 李裁의 후속 저작 『朱書講錄刊補』로 이어져 퇴계 학통의 한 핵심 계보를 형성하게 된 것이니 한국유학사상 중요한 참고

자료로 평가될 만한 것이다.¹⁵⁾

한편 이 무렵 선대 이래의 전통처럼 된 진사시에 합격하고 도백인 眉巖 柳希春의 천거에 따라 40중반에 修己 뒤의 벼슬길에 나서게 되었다. 소위 ‘도천 참봉’은 학덕이 특히 알려진 분만이 천거되는 명예로운 자리 이거니와 이후 선생은 王子師傅 등 내직과 함열·회덕 현감 등 외직을 거치고 귀향하게 되는데 그 동안의 행실 또한 두드러진 점이 있었다. 즉 慶基殿참봉이나 獻陵참봉시에는 원내의 잡희 遊宴 전렵 등의 폐습을 일소하고 왕자사부로서는 뒷날의 광해왕을 가르침에 있어 河洛사부와는 달리 기초 공부를 정밀하고 철저하게 시켜 선조대왕의 각별한 칭찬을 받았다. 또 수령으로서는 ‘視民如傷’의 지표아래 백성사랑, 송사 엄정, 官庫 보전 등에서 가장 모범적인 관인 생활을 하였다.

64세 때 향리에 돌아와 다시 면학과 교인을 계속한 선생은 67세에 임진왜란을 겪게 되었다. 이때 장자 根孝이하 권속은 물론 우산 안방준 등 영재를 수하에 두고 일향을 이끌던 터라 선생은 노구를 무릅쓰고 감연히 일어나 의병을 모집하였다. 이미 늙고 병들어 일선 출병은 任啓英 등 후진에게 맡겼지만 70이 넘는 정유재란 때에도 舉義와 출병 항쟁에 지주노릇을 계속하였다. 이러던중 병이 심해져 11월 18일 72세를 일기로 서거하니 학덕을 겸비하고 우국과 애민의 행실에 모범을 보인 숭고한 일생이었다.

당시 동궁(광해주)의 예장이 각별하여 주위의 부러움을 샀거니와 뒤에 호남 사림 등의 상소로 이조판서에 증직 되고 文康이라 賜諡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추승이었다. 또 이와 전후하여 선생을 모신 龍山書院에는

15) 李章佑(영남대 교수)는 『주자서절요』의 내용에 관하여 이퇴계가 구술하는 것을 李德弘, 朴光前 같은 제자들이 받아 적은 주석이 『朱子書節要講錄』 혹은 『朱子書節要質疑』로 전한다고 하면서 前問恭作편 『古鮮冊譜』의 관련 기록(동서 제2책 799면)을 주기하는 한편, 李裁가 후속 저작으로 『朱書講錄刊補』를 낸 경과와 학통 등을 해제하고 있다. (李章佑, 『密庵全集』上, 여강출판사, 1986, 영인본 10면의 해제 및 1면의 학통계보 도표 참조. 이 글은 영남대 만족문화연구소 편, 『密庵李裁研究』, 영남대, 2001에도 수록되어 있다.)

賜額 특전이 내리고 여러 명현의 참여로 誌狀·문집이 찬집되기에 이르렀다. 이어 후진 후손들의 노력으로 遇溪의 山仰亭, 廣灘의 竹川亭이 차례로 건립되어 명소로서의 성가가 오늘에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高弟 안우산 방준은 대저 『은봉전서』를 통하여 한국유학사에서 그 위치가 우뚝한 분이거니와 스승인 선생을 호남5현으로 내세우면서 그 중 학덕 躬行에서 특출함을 아래와 같이 찬양하였다.

“호남에서 학문으로 세상에 이름난 분 중 河西(김인후)의 학문·조행·절의는 높아서 미칠 수 없으나, 高峯(기대승)의 명쾌한 이론, 一齋(이항)의 불굴의 굳센 의지, 眉巖(유희춘)의 박학한 지식도 세상에 흔히 보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그 독실한 실천을 가지고 말한다면 저들 세 분 학자가 우리 선생과 비교할 때, 누가 나은지 모른다”¹⁶⁾

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또 선생은 『소학』의 범절에서 거문고 타기·국화 사랑·매화 가꾸기 등의 自樂에 이르기까지 두루 갖춘 면면이 여기저기에 엿보이거니와 우선 문학에서 그 높은 경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선생의 詩賦는 역시 극히 단편적으로만 남아있어 그 문학과 사상의 전모를 헤아릴 수 없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선생이 한번은

“屈原의 修辭를 배우려면 먼저 굴원의 情意를 찾아야 하네. 그대 보게나! 병들지 않은 사람이 어찌 그렇게 신음할 수 있겠는가”¹⁷⁾

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그 문학 이론이 어떤 차원에 이르고 있었던가를 짐작하기에 족한 것이다. 그러기에 하서 김인후도 선생의 시가를 접하고는 서로 일찍이 알고 지내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생각하였던 것이다.

특히 조선시대의 으뜸가는 한문학 대가 農巖 金昌協은 「遇溪記」에 대

16) 『은봉전서』 복간본 41면.

17) 『죽천집』 권1 賦

한 긴 평문 중에서 “좋은 문장이다. 그 문장이 진실하면서도 화려하니 만 일 도학의 가운데로부터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문과 질이 이처럼 빛날 수 있겠는가”¹⁸⁾ 라고 극찬한 대목이 있음을 보면 선생의 한국 한문학 史上의 위치 또한 상당히 높았던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제 죽천선생의 위상에 대해서 종합하면 이완재(영남대 명예교수)는 선유의 규정에 따라 ① 연원의 올바름, ② 학문의 순수함과 독실함, ③ 절의의 뚜렷함을 들면서 퇴계 선생의 학문은 성리학적 학문 원리에 입각하여 유학적 인생관, 즉 도덕적 인간의 확립을 도모하려 하였고, 竹川 선생의 삶이 또한 퇴계 선생이 추구했던 그 삶을 충실하게 실천한 것이었다.

여기서 두 선생의 사상과 삶은 首尾가 일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죽천 선생의 독실한 踐履는 퇴계 선생의 삶의 모습에서 더욱 절저하게 배운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퇴계선생의 학맥을 일반적으로 영남의 3학파로 분류하나, 호남 지방의 제자로서 竹川 朴光前 선생, 高峰 奇大升 선생, 山天齋 李威亨 선생 등이 계셨으니 필연코 호남지역에도 퇴계 선생의 한 학맥이 면면히 흐르고 있었으리라 짐작된다고 하였다.¹⁹⁾

다음 조원래(순천대학교수)는 죽천 박광전을 중심으로 한 전라좌의병의 擧義理念에서 큰 의미를 찾는다. 즉 평소 군사활동에 미숙한 선비 유생 층으로서 의병운동에 앞장선 까닭이 관군과 일반백성들에게 국난극복의 의지를 감발시키기 위해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민족의 침략으로 국토가 유린된 현실에서 평소에 그들이 닦아온 학문정신을 직접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었다. 즉 죽천을 위시한 의병지도층의 인사들이 군사에 밝지 못한 유생들임에 불구하고 의병을 일으킨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들은 의병정신의 본질이 곧 儒者의 충의정신에서

18) 『농암집』 복간본 45면.

19) 이완재 : 위 퇴계연구소의 『退溪學과 韓國文化』 32호(2003년 예정) 및 『박죽천연구논총』 논문 결론.

비롯된 것이며, 따라서 의병의 戰力 역시 군사기술의 전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道學의 학문정신이 발현된 정신전력에 있음을 역설한 것이다.

한편 박광전 일가의 의병운동이 시작된 것은 죽천 자신이 임진년 신병 중에 67세의 노령으로 전라좌의병을 일으키면서부터이다. 그는 장남 박근효와 처남 문위세를 각각 전라좌의병의 참모관과 糧餉官으로 출전시킨 후 자신은 보성 향리에 남아 군량조달을 위한 후방지원활동을 폈다. 처남 문위세의 경우는 정유재란시까지 독자적인 의병활동을 전개하면서 각 처에서 전공을 세웠으며, 차남 박근제는 1597년 죽천의 丁酉再倡을 도와 종사관으로 활약하면서 부친의 최후까지 의병전쟁을 함께 했었다. 따라서 박광전의 일가친척이 함께 펼친 임란 의병운동은 임진왜란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박씨칠현거의록』이 말하듯이 병자호란 때까지 계속되었다. 즉 父子祖孫 및 兄弟叔侄이 이어간 四世七賢의 의병운동은 임진왜란시의 죽천 ‘三父子倡義’에 이어서 병자호란시의 박근효의 장·차남인 春秀·春長과 박근제의 아들인 春豪, 그리고 春秀의 아들인 震亨에 이르기까지 모두 진원박씨 7현의 의병운동으로 기록되었던 것이다.²⁰⁾

끝으로 윤사순(고려대 명예교수)의 총평을 다음에 들어 둔다. 죽천은 당대의 명사인 홍섭과 양응정에게 학문을 익힌 것만으로도 교육자적 지식인으로 인정받기에 충분하다. 그런 터에 홀로 위기지학·성리학을 공부하다가, 41세의 장년기에는 당대 최고인 이황의 제자가 되어 『주자서절요』 등을 탐독하며 질의 문답을 한 성리학자이다. 이에 “이황의 高弟”이고, 그의 학문은 곧 “이황의 嫡傳”이라고 전하여진다. 이러한 점들은 그가 성리학의 가치 구현에 충실한 16세기의 선비 대열에 들게 됨을 의미한다.

사회의 타과 성리학이 지향한 爲己의 성향 때문에, 16세기의 선비는 곧 관리이고 적어도 관리후보를 지칭하던 옛 풍조와 다른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소학』과 「四書」와 「朱子書」들에 기초한 철저한 律身·수양과 학

20) 조원래, 동상 책들의 논문 결론

습을 통하여 덕성과 지식을 기른 군자의 자질을 갖추고, 정치와 거리를 둔 '처사의 인간상'으로 살았거나, 같은 자질을 갖추고도 愛民 爲民의 奉公行에 목숨까지 바친 '사림파계통의 인간상'을 지닌 인물들이었다.

죽천은 바로 뒤 인간상을 지닌 인물에 해당한다. 그가 『소학』을 중심으로 제자들의 교육에 임한 사실은 그 자신이 『소학』의 중요성을 체득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그의 수양을 바탕으로 한 군자다운 덕성함양의 구비를 입증하는 것이다. 그가 왕자의 師傅로 임명받은 것은 그의 덕성뿐만 아니라 학문의 수준까지 가늠케 하는 것이다. 더욱이 그가 관리로서 보여준 公私의 엄격한 구별이라든가, 시비 곡직의 냉철한 판별, 두터운 愛民의 정에 의한 爲民 치적은 모두 봉공행의 시각으로도 사람과 계열에 들 수 있는 그의 선비다운 모습이다.

더욱이 죽천이 임진·정유 왜란에서 보인 활약상은 사람과 계열에 들고도 남는 그 이상의 선비상이다. 왜란 때에 그가 병든 노구를 이끌고 국가와 生民을 구하는데 목숨까지 바치기를 서슴지 않았던 것은 이 민족이라면 누구나 깊은 감명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국란을 당하여 義軍을 일으켜 적을 방어하고 퇴치하는데 진력한 그가 오히려 수령의 무고로 감사에 게 혈문 당한 것은 이순신의 경우를 연상케 한다. 그에는 적과의 항쟁에서 탈진한 것보다 수령과 감사의 태도가 준 충격이 그의 수명을 단축시킨 더 큰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외족의 침략에 대항하여 문관들이 붓을 던지고 義軍을 모집하여 의군장으로서는 전투를 대규모로 한 것은 역사상 전에 없던 일이다. 더욱이 그러한 것이 죽천 하나에 그치지 않고, 여러 곳의 문관과 문사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은 16세기에 처음 보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이 여러 곳의 여러 인물에 의해 이루어졌던 만큼, 그것은 마침내 선비상과 선비관을 이루는 '선비정신'에 대한 관념을 바꿔 놓게 되었다. 즉 국가 위난의 시기에는 선비 역시 武士만 못지 않은 항쟁의 정신으로 임한다는 관념이 생겨났던 것이다. 죽천은 이러한 관념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 선비의 전형에 해당한다. 왜란 때의 의병장들이 있었던 까닭에, ‘나라의 으뜸 되는 기운’으로 규정된 선비정신은 무사라는 어휘에서 보듯이 武人の 정신과도 일맥 통하게 되었다.

더욱 유의해야 할 문제는 임진왜란 같은 외족의 침략을 받고 “나라를 지키다”고 할 때의 ‘국가관’이 어떤 것인가에 있다. 그 점은 당시 작성·유포된 격문이나 그와 유사한 것에서 조금이나마 찾아진다. 한 예로 정유재란이 일어나 죽천이 문인 안방준을 데리고 천봉산으로 들어갔을 때, 생원 박사길이 숲 속에서 나와 의군을 모집하여 왜군과 싸울 것을 제안 하였던 것을 먼저 상기하자. 그 제안의 내용은 “나라의 사태가 극에 달하였는데, 신하된 자가 앉아서 죽기를 기다릴 수 없으니, 마땅히 의군을 일으켜, 죽음으로써 ‘왕을 섬김(王事)’이 옳다”고 한 것이다. 여기 원문인 ‘王事’는 글자대로 하면 ‘제왕의 일’, 또는 ‘왕실의 일’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런 뜻으로는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왕 섬김’이라 해야 옳은 번역이겠는데, 그렇게 하고 보면 박사길의 사고로는 국란 타개는 곧 왕을 편안케 하는 것으로서 국민을 위하는 데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 그에 있어서는 ‘왕이 곧 국가’인 셈이다. 사실 대부분의 유학자들은 당시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죽천의 격문을 보면 왕에 관한 연구보다 ‘生民’, ‘生靈’으로 표현된 국민에 대한 우려를 더 하고 있다. 이 점이 당시의 다른 선비들의 사고와 다른 것이다. 다음 글은 죽천이 작성한 격문의 일부이다. “국가의 사태가 매우 위태로워, 참으로 통곡할 만 하다. 이에 의사가 분발할 때이다. 생각하면 왜적이 서울에 침입하여, 장정들을 무찔러 죽이니, 슬프도다. ‘우리 생민’이 몸둘 곳이 어디이고, 집 삼을 곳이 어디인가? 영남이 이미 그렇게 된 자취를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노라…어찌 國事に 죽지 않겠는가. 하물며 만일 요새를 차지하여 적의 세력을 막고 꺾는다면, 죽음에서 생명을 구하는 것인데 지금이 그 기회이다. 치욕을 씻어내고 국가를 회복하는 것도 이 때이다. 우리 道 안에는 반드시 남은 장정과 홀어

진 병졸이 있을 것이다. 만일 배운 선비가 소집하고 격려하며 협력하여 떨쳐 일어나 스스로 一軍을 형성하고서, 적의 동향을 살피며 요충을 고수하면, 위로 왕의 군대에 성원이 될 수 있고, 아래로는 한 지역의 '생령'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당시로는 왕을 위하고 이른바 사직을 위하는 것을 어느 유학자나 충성으로 여긴 만큼, 죽천이라고 하여 예외에 들었다고 할 증거는 없다. 그러나 위 글을 근거로 하는 한, 전란이 심하여 나라 전체가 화를 당하고 있는 때에 그가 관심을 쏟은 것은 누구보다도 '생민·생령'이라는 인민이 고통과 고난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의도에서 그는 義軍 모집의 의의를 궁극적으로 '인민의 보호와 안녕'에 두고 있던 사교의 소유자였다. 바로 그의 이런 사고는 신분적 봉건시대인 당시의 전근대적 사고로는 상당히 '進步의 성격'을 띤 것이다. 죽천의 선비정신에 대한 '자리 매김'을 논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하고 싶다. 그를 선비답게 하는 정신은 외침을 당한 위기에서 남보다 더 두터운 '愛民·爲民·護民'의 충정을 가지고 의군의 선봉에 서도록 한 그것이 아닐 수 없다.

죽천의 선비정신이 지닌 위상을 이와 같이 추정할 때, 아울러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시기 선비정신과의 관련 문제이다. 위에서 살핀 것에 따르면, 16세기 초까지 형성된 선비정신은 趙光祖를 중심으로 한 사림파가 보인 위민 애국의 희생적인 봉공정신이 으뜸으로 꼽히는 것이었다. 그것은 실상 孔子가 일찍이 드높인 '志士型' 선비가 지닌 정신이다. 조광조를 선비의 이상형처럼 여긴 사실은 이미 그 시기부터 조선의 선비관이 공자의 사고에 따라 지사형을 선비의 전형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되었음을 의미한다. 죽천의 선비정신은 가까이는 그 선비관을 계승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조광조 등 사림파가 위민정신 아래 대내의 부조리 제거에 희생을 감수한데 비하여, 죽천은 위민정신 아래 외족의 침략을 방어하는 대외적인 여건 교정을 위해 희생을 감수한 것이 다르다. 이런 관점에서 판단하면, 죽천 등이 보인 선비정신이 그 후의 호란기나 조선말 일

제의 침략에 항거하기 위해 일어난 ‘의병정신의 선구적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²¹⁾

〈부〉 증보 죽천 관련 연보 초²²⁾

<1. 평생경력>

- 1526년 丙戌(중종21년) 정월 16일 寅時에 전라도 보성군 兆陽里 집(현 鳥城面龍田里)에서 탄생하다.
- 1533년 癸巳(8세) 아버지 진사공이 시를 지으라고 하면서 道字에서 爲字에 마치라 하니 곧 바로 「道自天命豈人爲」라 하고, 또 다시 爲字로 시작하여 道字에 마치라고 하니 즉석에서 「爲一大成孔子道」라고 하니 부형들이 크게 기특하게 여기다.
- 1534년 甲午(9세) 忍齋 洪暹에게 수학하다. 이 때 홍공이 興陽(현 고흥)에 귀양와 살았는데, 10리 길을 멀다 앓고 춥거나 더울 때에도 일과를 빼지 않았다.
- 1536년 丙甲(11세) 監司가 선생의 명성을 듣고 순시 길에 선생에게 「瀟湘夜雨圖」라는 제목으로 시를 짓게 하니 선생이 바로 四韻詩를 지어 바쳐 감사가 크게 칭찬하며 특대 하다.
- 1537년 丁酉(12세) 부친이 科擧에 급제함이 급선무라고 詞章 배우기를 독책하였는데, 선생은 어려운 『性理大全』을 구해 일과의 여가에 같이 읽으면서 진리를 탐구하다.
- 1538년 戊戌(13세) 문리를 깨달아 혼자서 『中庸』을 통독하다.
- 1545년 乙巳(20세) 인종원년 아버이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실력을 갖추 고서 任百英과 같이 과거 길에 나섰는데, 상경 도중 石川 林億齡을 만나 “군자는 몸가짐을 무겁게 해야 한다”는 충고를 듣고 평생토록 약석으로 삼았다 한다.

21) 윤시순, 위 책들의 논문 결론

22) 『竹川集』과 『珍原朴氏宗誌』 상권의 죽천 연보를 바탕으로 삼아 새로 정리 보충한 것이다. 『朴竹川研究論叢』의 종합 연보 참조.

- 1546년 丙午(21세) 명종원년 장흥 有治의 南平 文進士 贈參議 諱亮之의 따님과 결혼하다.
선생의 대소사에 평생 내조의 공이 컸다고 전한다.
- 1547년 丁未(22세) 능주의 松川 梁應鼎에게 수학하다. 이 때 사화를 당한지 머지않아 대개 성리학을 꺼렸으나 선생은 爲己之學을 힘써 날로 조예가 깊어갔다.
- 1550년 庚戌(25세) 長子 根孝가 태어나다.
- 1554년 甲寅(29세) 東堂 초시 론문에 1등으로 합격하다.
- 1555년 乙卯(30세) 綾城(능주) 邑宰는 선생의 친구인데 여러 번 청하여 찾아가니 10여 일을 환대하면서 소녀까지 시침케 하였으나 조금도 가까이 하지 않으니 읍재가 탄복하였다.
- 1556년 丙辰(31세) 韓胤明과 한 책상에서 1년 동안 같이 공부하면서 정좌하고 서로 경책하면서 독실하게 공부하다.
- 1557년 丁巳(32세) 竹川(지금의 廣灘川 부근) 뒷산에 정사를 짓고 爲己之學에 전념하다.
<후일 선생 거소가 조양(조성면)에서 龍門(보성읍 용문리)으로 바뀌거니와 인하여 당시까지의 海嶠라는 호 대신 죽천이라는 自號를 주로 쓰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무렵 연이어 제주 등지에 왜구가 침노하자 매일 활쏘기 훈련을 하면서 국난 대치를 역설하다.
- 1558년 戊午(33세) 門人 宣廷達이 屈原의 楚辭를 배우려고 하니 선생이 책 가위에 五言絶句를 써주어 장려하다.
- 1559년 己未(34세) 보성 天鳳山下 大原寺에서 강학하였는데 제우 들과 臺를 지어 游憩할 장소며 別區를 만들고 宜峰 南彦紀에게 「遇溪」의 2大字를 龜岩에 새기게 하여 지금도 남아 있다. 이 때에 선생이 「遇溪記」를 지었는데 후일에 명문장으로 칭찬이 자자하였다.

- 1560년 庚申(35세) 차자 根梯가 태어나다.
- 1561년 辛酉(36세) 때마침 중국사신이 입국하게 됨에 판서 尹毅中이 接伴使가 되어 왕에게 종사관으로 선생을 추천하였으나 사양하다.
- 1566년 丙寅(41세) 겨울에 안동 禮安으로 退溪선생을 찾아 배움을 청하다. 퇴계가 『朱子書節要』를 초하다가 선생에게 이로써 立志할 根基를 삼도록 하였다. 한철 수업을 마치고 선생이 귀향을 고하니 퇴계가 『주서절요』한 질을 주면서 詩 五章을 지어 뜻을 이루게 하였다.
- 그 뒤 사제간에 많은 서신왕래와 『주서절요』에 대한 질의 응답이 있었는데, 이것이 선생의 저술로 남아(『朱子書節要質疑(疑義)』) 퇴계 학통의 한 핵심 계보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 1567년 丁卯(42세) 선조원년 東堂 초시<賦詩>에 합격하다.
- 1568년 戊辰(43세) 增廣會試에서 진사 2등으로 합격하다. 이 때 모친의 병환이 위급하여 급히 귀향하고 遊街행렬도 보여드렸으나 8월에 모친 최씨의 상을 당하였다.
- 1570년 庚午(45세) 선생은 평소 병약하였으나 執喪을 가례대로 3년을 마치고도 별탈이 없었으니 사람들이 誠孝에 감동한 소치라고 하다.
- 이 해에 전국이 가뭄으로 큰 기근이 들자 근처 농민들을 동원하여 대내 남쪽 골짜기에 방죽(竹川堤防)을 쌓기도 하였다. 큰 아들 根孝(長水縣監에 제수)도 정유년 후 보를 쌓아 지금도 長水淤가 남아있다.
- 眉巖 柳希春이 전라감사가 되어 인재를 찾을 때, 진사 宣應直 등이 선생의 효행 집례와 법도 있고 교육 정진함을 올린 薦狀을 그대로 조정에 천거하니 선응직 등에게는 추천 잘한 상이 내렸다.
- 1571년 辛未(46세) 道薦으로 전주 慶基殿 참봉에 임명되다. 경기 전 후원에는 꽃과 과목이 많아 놀이터가 된 지 오래였는데 선생이 일체의 기생놀이를 엄금하니 齋中이 정숙해졌다.

- 1572년 壬申(47세) 獻陵(조선 태종 능, 현 서울 내곡동) 참봉에 임명되다.
 忍齋洪公이 다시 정승이 되어 옛날을 생각하며 선생을 불렀으나 유생이 정승의 문에 출입함은 불가하다고 불응하다.公私를 가려 師生의 사이에도 평소 엄격함이 이러했다.
- 1577년 丁丑(52세) 10월에 진사공의 상을 당하다. 居喪을 한결같이 母喪때와 같이 하였다.
- 1579년 己卯(54세) 아버지 상을 마치다. 선생이 벼슬에는 뜻이 없고 후진양성을 자기임무로 여기니 책을 가지고 찾아온 자가 많았다. 어린아이는 『소학』부터 배우게 하였다.
- 1580년 庚辰(55세) 가을에 東氷庫(서울) 別坐에 임명되었으나 왕에게 사은숙배하고 불취하다.
- 1581년 辛巳(56세) 王子師傅에 임명되다.
 이 때에 왕자가 취학하게 되어 선생이 뽀뽀 사부가 되고 河洛이 부사부가 되었는데, 河洛은 講學을 많이 하려 하고 선생은 精明하게 가르쳤다. 임금의 왕자의 글 읽는 것을 살펴보고 “탐독하면 불명하니 마땅히 박사부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하루는 宣祖王이 불러 술잔을 권하니 선생은 원래 술을 좋아하지 않아 반만 마시고 돌리었다. 타일에 왕이 왕자에게서 박사부는 평소 술을 마시지 않음을 듣고 왕이 “술로 실덕하는 자 많은데 못 마시는 것이 잘된 것이다.”하고 紫·紅의 비단 한단 式을 하사하였다.
- 1582년 壬午(57세) 어느 날 왕자가 宮中事를 말하려는 것을 선생이 자식의 직분을 다할 뿐임을 타일러 왕자가 다시는 말하지 않았다.
- 1583년 癸未(58세) 牛山 安邦俊이 찾아와 수학하다. 여름에 사부의 소임을 마치니 사헌부 監察에 임명되고 겨울에 咸悅(익산)縣監에 제수 되다.
 이 때 왕자가 江頭에 까지 전송하려는 것을 선생이 만류하면서 宮에서 상별 하였다.

- 1584년 甲申(59세) 함열현감에 부임한 후 “視民如傷”이란 4大字를 벽에 써 붙이고 자상하게 백성을 돌보다. 東軒(현청)이 퇴락 했어도 백성을 노역치 않고 고치며, 공무의 여가에 향교에 들러 학생들과 도의를 강론하니 수업한 사람이 많았다. 집안에서는 노복 하나 죄주지 않고도 관문에서 기강을 엄하게 다스리니 東軒內가 조용하였다.
겨울에 왕자가 서찰에 臘藥(보약)과 필묵을 보내오다.
- 1585년 乙酉(60세) 선조 葦南公의 필적을 얻어 그 기문을 짓다.
- 1586년 丙戌(61세) 봄에 왕자가 서찰에 납약을 보내오고 臨海君도 서신과 환약을 보내오다. 가을에 현감을 그만두고 귀향하다. 이유는 감사 某가 鶯婢를 시켜 각 고을에서 뇌물을 받아온 사실이 어사에게 알려지자, 선생이 어사와 친구이므로 다른 일을 꾸며 조정에 모함하여 퇴직케 한 것이다. 선생은 즉일로 행장을 차리고 귀향하니 그 때 창고를 조사한바 오히려 여분 米가 千여 석이나 되었으니 감사의 허보임이 드러났다.
- 1587년 丁亥(62세) 掌苑(직명 失傳)에 임명되었다가 다시 懷德(대덕)縣監에 제수 되다.
회덕현감으로 부임하니 한 종친(왕족)이 촌민과 노비관계로 소송한 지가 수년간 끌어오면서 10여 현감이 바뀌도록 미결로 넘어왔다. 선생이 그 문적과 정상을 잘 조사하고 공정하게 촌민에게 승소판결을 내리니 종친이 다시 사헌부에 상소하였다.
- 1589년 己丑(64세) 회덕현감을 그만두고 귀향하다. 御史 禹俊民에게 미움을 받아 파귀하니 회덕사람 姜符가 시를 지어 전별하였다. 이 해에 대내 정사를 보성 大龍山 북서 산기슭(우와실)에 移建하다.
<전후하여 거소도 마지막으로 용문에서 瓊谷(대내 근처)에 옮긴 듯 하다. 인하여 호를 경곡이라 한 적이 있다>

1590년 庚寅(65세) 문족 들을 모아 水多院(광곡 물안이) 도선산에 성묘하다.

선생이 죽인과 상의하여 노소 간에 각각 祭物을 마련하여 성묘하고, 廣灘川上에 옮겨 앉아 음복하면서 돈목을 다졌다. 그 때 선생이 述懷詩 8수를 짓다.

1592년 壬辰(67세) 왜병이 침입하니 보성에서 의병을 首倡하다.

오랜 태평시대라 10일도 못되어 왜적에게 서울이 점령되니 任啓英·金益福·鄭佶 등이 선생에게 출전계책을 요청하였다. 선생은 즉각 열읍에 격문을 발송하여 향병 700여명을 창모하고 노병으로 任公을 의병장에 추대, 門人 安邦俊을 都體察使 鄭澈에게 보내어 군무를 품의케 하고 文緯世는 군량을, 鄭思悌는 종사관, 장자 根孝는 義幕의 참모로 출전하여 금산과 무주에서 적을 무찌르고 성주와 개령을 수어하여 크게 전공을 세우다.

동궁이 完州에 監事 행차한 소식을 듣고 선생이 달려가 동궁에게 시사에 필요한 10여조를 개진하니 동궁이 가납하고 감사에게 스승 대접을 당부하면서 3일간을 더 머물게 하고 富醞을 내리다. 그 후 任公은 선생의 공로를 상주하여 軍資監正을 제수하니 선생이 헛되이 三品까지 받을 수 없다고 임공을 시켜 상소로 밝히매 이를 이는 자 의롭게 여기다.

1593년 癸巳(68세) 翊衛司의 翊衛(왕세자 보좌)에 임명되다. 이에 앞서 전란 때 왕을 호종(수행)하지 못했음을 사죄하는 상소를 올리니 위 직을 제수 하다.

1595년 乙未(70세) 봄에 다시 翊衛를 임명받다. 동궁이 선생이 입성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궁인을 시켜 재삼 위로해오다.

여름에 新昌(아산)縣監에 제수 되었으나 불취하고, 또 翊衛를 임명하나 노병으로 사양하고 돌아오니 동궁이 작별하면서 『大學衍義』와 『小學』을 하사하다. 돌아와 주역과 朱子書를 계속 읽었다.

1597년 丁酉(72세) 왜적이 또 본도를 침범하매 병든 몸을 이끌고 의병을 모집하다.

선생이 家軍을 거느리고 상경하려 하였는데 남원이 함락되고 길이 막혔다 하니 安牛山과 더불어 天鳳山에 들어가다. 인심이 흉흉하고 생사가 조석에 달린 판에 生員 朴士吉이 마땅히 창의하여 王事に 죽음이 가하다하고 선생을 의병장으로 추대하니 선생이 내 죽을 몸이 한 숨이 있는 동안 왜적과 싸우자고 의병과 군량을 모으다.

10月 숙부인 문씨가 화순 母后山에서 별세하다.

선생이 사생을 개념치 않고 朴士吉 諸人과 동북에 진입하며 副將인 前判官 宋弘烈을 시켜 적진에 쳐 들어가 동북 赤壁 싸움에서 대승하는 등 군성이 진작되었으나 도망한 수령들이 시기하여 방해를 해오다.

11月18日에 서거하다.

이 때 감사가 수령들의 무고를 듣고 선생을 불러 힐문하였는데 귀로에 장성 珍原에 들러 성묘하고 돌아와 얼마 안 되어 졸하다.

<2. 졸후 추숭>

1599년 己亥(선조33년) 10월 初6일 보성 沙谷 良坐에 장사하다.

난리중이라 미쳐 장례를 못 치렀는데, 이 해 가을 동궁이 地師를 보내 묘지를 잡고 侍講院에서 본도 감사에 지시하여 부의를 보내오다.(포목20필, 정조20석, 소금30석, 백지15束, 內棺 1, 外棺 1, 석회100석, 造墓軍 500명 등)

1607년 丁未 大龍山 기슭에 龍山書院(鄉賢祠宇)이 창건되다. 용산 愚谷村(우와실)은 선생이 강학한 곳인데 문인 安牛山과 鄭蘭谷이 도내 사림과 정의하여 창건하다.

1610년 庚戌(광해4년) 通政大夫 承政院左承旨 兼 經筵參贊官에 증직되

어 가묘에 치제하다.

- 1653년 癸巳(효종4년) 선생 행장을 安文康公邦俊이 찬하다.
이보다 앞서 문인 蘭谷 鄭侁이 「죽천사실」을 짓고, 廣灘 宣廷
達は 「죽천유사」를 찬술하다.
- 1664년 甲辰(현종5년) 선생의 손자 朴春長이 첫 보성군지인 『山陽誌』
를 편찬하여 선생과 안방준을 ‘명현’으로 추대하니 이후 문현이
이에 따른다.
『산양지』는 1741년(辛酉 영조 17)에 초간본이 나오고 1902년
(壬寅 고종 광무6)에 『新增山陽誌』로 중간되다.
- 1705년 乙酉(숙종29년) 호남유생 任致堂 등이 상소하여 서원의 사액을
청하니 丁亥(1707년)에 왕이 특별히 「龍山書院」이라 사액하고
관원을 보내어 치제하다.(院長 文純公 權尙夏)
- 1738년 戊午(영조14년) 墓誌銘은 陶谷 文簡公 李宜顯이 짓고, 墓碣銘은
陶菴 文正公 李絳가 찬하다.
- 1739년 己未(영조15년) 文集이 완성되다.(圖岩 尹鳳朝 서문)
- 1748년 戊辰(영조24년) 墓表를 屏溪 文敬公 尹鳳九가 찬하다.
- 1754년 甲戌(영조 30년) 5代孫 乃錫跋로 문집 초간 1책이 출판되다.
- 1809년 己巳(순조9년) 文集을 용산서원에서 重刊(2책본)하다. 剛齋 文
敬公 宋穉圭가 서하고 七代孫 馨德이 謹跋하다.
- 1820년 戊子(순조28년) 湖南儒生 安洙 등이 상소하여 節惠(諡號)의 은
전을 청하다.
선생을 두고 南溪 朴世采는 도학과 절의의 성대함이 백세의 公
案이 될 만 하고, 二憂堂 趙泰采는 학문과 행의가 동방의 儒宗
이 된다고 하였다.
- 1835년 乙未(헌종원년) 11월에 資憲大夫 吏曹判書 兼 知義禁府事 成均
館祭酒 侍講院贊善 五衛都摠府 都摠管에 贈職되다.
- 1841년 辛丑(헌종7년) 정월 節惠之請을 왕이 운허하다. 3월에 諡狀을

우의정 趙寅永이 찬하고, 10월에 文康이라 賜諡하다. ‘博文多見
日聞, 淵源流通 日康’

1871년 辛未(고종8년) 서원회철령으로 龍山書院이 폐원되다.

1875년 乙亥(고종12년) 『竹川集 續編』 1책이 奇正鎭 跋文을 받아 간행
되다. 이 보다 앞서 1856년 丙辰(철종7년)에 後孫 重洪謹序의
다른 『竹川集(續編)』이 나왔으며, 다시 『竹川集拾遺錄』 1책이
고종 19(1882)년에 목활자본으로(李炳珪 序文, 중홍 장자 懿鉉
跋文) 출판되었는데 모두 오류가 많아 朴泰璿·朴佑龍·朴佑淑
등 후손들이 문집 보완 노력을 계속하다.(甲子년<1924> 吳震
泳 續集跋)

1876년 丙子(고종13년) 봄에 선생과 직계 자여손 四世七賢의 임진 병
자 양란 의거를 다룬 『朴氏七賢學義錄』이 중간되다. 이 책의
초간본은 철종8년(1857) 봄 후손 朴重洪이 꾸몄는데, 그의 조카
朴廈鉉이 여기에 刪定 개편하여 낸 것이다.

1918년 戊午(고종55년) 神道碑를 세우다. 碑銘은 良齋 田愚가 찬하다.

1929년 己巳 原集·續集을 합한 『竹川集』(三刊 4책본)을 보성 竹谷精
舍에서 편찬하여(跋文 安圭容 찬) 이듬해 간행하다. 이 때 『竹
川先生遺墨』 목판본 1책도 함께 편간 되다.

동년 보성의 山仰亭을 복원하다.

天鳳山下 大原寺 앞에 위치한 이 정자는 선생이 강학하며, 명
문장 「遇溪記」도 지은 곳인데, 후손 朴泰璿과 朴佑龍이 창도하
고 朴彰柱가 독담 건립하다.

上樑文은 東江 金甯漢이 짓고 山仰亭記는 石農 吳震泳이 엮다.

1935년 乙亥 不祧廟(나라에서 영구히 제사지내도록 정한 사당)를 복원
하다.

선생 등 沙谷 5세(12~16세)의 선산 祭田과 遇溪畝를 헌납하는
한편, 또 선생의 재실 및 정자 건립에 많은 성금을 후손 朴彰柱
가 연이어 내다.

1949년 己丑 竹川亭을 창건하다.

寶城郡 芦洞面 廣谷里 보성강 상류인 대내는 선생 초년 講學之所이므로 후손과 사림이 뜻을 모아 선생의 호를 따른 竹川亭을 세웠는데 記文은 吳震泳, 安圭容이 찬하고, 事實記는 후손 朴泰璿이 짓다.

1956년 丙申 선생의 재실 華山齋가 복원되다.(도유사 박원재)

1960년 庚子 『竹川先生 遇溪記 草本』 1책이 영인 출간되다.

1987년 丁卯 龍山書院 遺墟碑를 도비 지방문화사업 보조 및 사람과 본손들의 성금으로 우와실 입구에 세우다. (기문은 前吏曹參判 驪興 閔丙承 찬)

1990년 庚午 山仰亭을 복원하다. 6·25란 중에 산양정이 불났는데 지방문화재 사업으로 옛 초석에 모형을 따라 郡費 보조 및 후손들의 성금이 모여 이루어지다.

이듬 해 정자아래에 「우계기비」를 세우다.(추진 박하주)

1991년 辛未 11월 『珍原朴氏宗誌』상권에 죽천선생편을 넣어 발간하다.(발행 박관주)

1990년 전후에 『竹川先生文集』(三刊本)이 서울 民族文化推進黨 등에서 영인 출간되다.

2000년 庚辰 선생 직손 파보인 『문강공과 세보』를 발간하다.(발행 박용택)

2001년 辛巳 선생 및 상하 4대의 묘역과 유적을 크게 정화하다.

2002년 9월14일 「竹川 朴光前의 學問과 思想」 학술대회를 光州에서 성대히 개최하다.

전년 봄 문강공 죽천 박광전선생기념사업회가 발의되고(주무 박성봉 박정웅), 대중회 유사(박용휘 외)와 학술대회를 준비한 끝에 이날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전 소장 송휴철교수 등), 문중(박태영지사, 박관주·박성기·박형기회장 등) 및 기념사업회(鄭德基총장, 박성봉 이사장 등) 공동 주최로 전국 저명 교수들(주

제 발표자-고려대 尹絲淳, 영남대 李完栽, 부산대 柳鐸一, 전주대 吳鍾逸, 순천대 趙浚來, 광주대 高英津, 전남대 金大鉉교수와 토론 및 사회자-전남대 安晉棼좌장 외 8명 등)의 참여하에 광주·전남 및 대구·경북의 귀빈 유지를 비롯 경향 각지의 후손 등 도합 근 600명이 운집하여 역사적인 대회가 열린다.

다음 날 관계교수 들과 선생의 보성 일대 유적(묘소와 정자 등) 및 유물(『주자서절요』 등)을 답사 봉심하다.

2003년 (2월) 위 죽천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기관지 『退溪學과 韓國文化』 제32호에 특집으로 발간하다.

동년 癸未 『竹川先生文集』(三刊本)을 완역한 『국역 죽천집』을 安東教 역주로 간행하다.(안진오 서문, 박성봉 해제, 박관주 발문)

동년 선생관련 연구 및 자료의 총집인 『朴竹川研究論叢』이 13대손 朴性鳳주편으로 출간되다.

참고문헌

<단행본>

『竹川先生文集』(三刊本) 보성 1930,

『국역 죽천집』 安東教 역주 서울 2003

『珍原朴氏宗誌』 상권 (죽천선생편) 광주 1991

『퇴계학 연구논총』 10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997

『退溪門人錄』 이희대편저 서울 태양사 1983

『朴竹川研究論叢』 서울 2003

<논 문>

1. 윤사순(고려대명예교수): 「16세기 조선유교사회와 죽천(朴光前)의 선비정신」, 『竹川 朴光前의 學問과 思想 학술대회 발표요지』 경북대 퇴계연구소 2002
2. 오종일(전주대교수): 「호남5賢과 죽천 박광전」, 동상 요지 책
3. 이 완재(영남대명예교수): 「退溪先生の 學統과 竹川先生の 位相」, 동상 요지 책
4. 고영진(광주대교수): 「퇴계 이황학맥의 호남전파와 유학사적 의의」, 동상 요지 책
5. 류탁일(부산대명예교수): 「『朱子書節要』의 編纂 流通과 朴光前의 位置」, 동상 요지 책
6. 조원재(순천대교수): 「朴光前의 擧義와 그 一家의 의병운동」, 동상 요지 책
7. 대현(전남대교수): 「죽천 朴光前의 문학연구」, 동상 요지 책
8. 유명중(원광대명예교수): 「竹川 朴光前의 人品과 性理思想」, 동상 요지책
9. 박성봉(경북대초빙교수): 『죽천집』·『죽천집습유록』·『죽천집속편』 및 『박씨7현거의록』 해제, 『국역竹川集』(安東教 역주) 2003
10. 윤천근(안동대교수): 「朴光前의 사상체계속에서 정치권력의 문제」, 『安東文化研究』 6, 안동 1992

투고일 2002. 12.24 심사시작일 2003. 1.6 심사완료일 2003. 1.18

Abstract

Explanatory Notes of *Jukchon: Collected Essays*

Park, Sung-bong

Jukchon: Collected Essays is a work compiled by Gyu-Yong Ahn, who put together the original(1754) and 6 subsequent enlarged editions(ranging from 1809 to 1929). Poems and diaries in this edition is the new materials never discussed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Among others, "A Trip to Ugye" is famous. Apart from this compilation, there are *Jukchon's Sayings: Uncollected Essays* and *A Sequel to Jukchon's Essays*, respectively in the Yon Joong Dang library at Kyung Book University and National Central Library. The sequels are also owned in the name of *Special Edition* by the libraries at Yon Sei University and Yeung Nam University, and others. In sum, among a variety of versions of Jukchon collection, *Jukchon: Collected Essays* is most authentic.

Master Jukchon was born at Bosung, Jon-la-doh in January, 1526. He was from a typical family of confucian learnings. When he was 41 years old, he came to Teo Gye Lee, the greatest master at that time. He became one of most Teogyian students. When Japanese armed forces invaded Korea in 1592, he organized militia. In the 1597 Japanese invasion, he won a victory. He died at age of 72 on November, 18, 1597. Yong San Seo Won (confucian academy) was dedicated to master Jukchon. The king bestowed the privilege of a

charter upon this academy and a posthumous title of Mungang upon him, praising his fidelity and his Neo-Confucian scholarship. Jukchon is known as one of greatest sages in Ho Nam area.

Jukchon participated in the war in the spirit of confucianism. There are fewer statements about king than about the affection for people. In the spirit of loving, serving, protecting people, he was at the head in the fighting against Japanese invaders.

Keyword

Jukchon: Collected Essays, one of most Teogyian students, a preceptor of princes, "A Trip to Ugye" the leader of a righteous army, the 5 greatest sages in Ho Nam area, Yong San Seo Won (confucian academy), a posthumous title of Mungang, the summary of Chu Hsi's Letters

『竹川集』 解題 요약

박성봉

1. 『죽천집』의 특징

『竹川集』은 문강공(文康公) 죽천 박광전(朴光前, 1526~1597)의 문집으로, 1929년에 원·속집 합 9권 4책이 안규용에 의하여 꾸며졌다. 근자에 민족문화추진회 등 몇 출판사에서 양장 보급판으로 복간되고, 따로 번역본이 편간되기에 이르렀다.

죽천집은 먼저 詩, 賦, 記 등 문학 작품이 한국 문학사에서 아직 거론된 적이 없는 새로운 자료임을 알려준다. 특히 ‘遇溪記’는 道學의 가운데로부터 우리나라의 명문이라고 찬탄되었다.

또 卷首 賜祭文 2편에 上疏 2편, 壬辰學義時檄文 등과 附錄으로 年譜·行狀·諡狀·神道碑銘 등이 있는데 안방준이 죽천의 학덕 躬行의 특출함을 높이 평가한 ‘호남5현’ 논문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2. 『竹川集拾遺錄』과 『竹川先生文集續編』

『죽천집』은 위 重刊 합집 외에 또 『竹川集拾遺錄』 1책이 나왔다. 1권은 원집에 빠진 것을 수습하여 현행 『竹川集』에 수록되었다.(속집 표시). 2,3권은 자료적인 ‘문인록’ 등 편찬물인데 현행본에는 유보 탈락된 부분이다. 일부 부풀림 등이 문제된 것이다.

한편 『竹川先生文集續編』 1책이 先後로 두 가지가 편간되었는데, 후세 사람들이 쓴 문서 들로, 역시 현행본에서는 많이 유보 탈락되었으니 자료의 장황 번잡을 피하기 위한 절제에 연유한 것이었다.

요컨대 죽천 관련 문집은 전후 6차례에 걸쳐 출판된 셈이다. 즉 초간(영조대 1754) 원집 1책이 나온 다음, 중간(순조대 1809) 2책 본이 기준이

되어 속편 책들이 철종·고종년간(①본 1856, ②본 1875)에 엮어졌으며 또 『습유록』(1882) 1책도 출간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너무 어지럽고 문제가 많아 1920년대에 정돈작업이 벌어진 끝에 1930년 마침내 3간 4책(『유목』을 포함하여 5책) 본이 간행되기에 이르렀다.

3. 저자 죽천 박광전 약전

조선 중종 21년 丙戌(1526) 정월 16일 寅時에 전라도 보성 땅 兆陽里에서 출생하였는데, ‘清白傳家’를 가훈으로 11대 연속 進士는 되었지만 大科는 안 본 전형적 선비 집안이었다. 어려서 洪暹(忍齋)에게, 이어 松川 梁應鼎에게 배우고, 41세 때 퇴계에게 나아가 “이황의 嫡傳” 高弟子가 되었다. 『朱子書節要』 8책을 전별로 받아 『節要質疑』등을 저술함으로써 유학사에 寄與하고 연원을 호남에 퍼쳤던 것이다.

‘道薦 참봉’과 현감 등을 하면서 선정을 베푼 외에 王子師傅가 되어 기초 공부를 정밀하고 철저하게 시켜 선조대왕의 각별한 칭찬을 받았다.

1592 임진란에 의병을 모집하고, 1597 정유재란 때에도 의병장이 되어 공훈을 세웠는데, ‘三父子倡義’에 진원박씨 7현의 의병운동으로 이어졌다. 1597년 11월 18일 72세를 일기로 서거. 선생을 모신 龍山書院에는 賜額의 특전이 내리고 文康이라 賜諡되었다. 山仰亭, 竹川亭등 기념 정각이 세워지고, ‘호남5현’으로 추승, 학행에서 특출함이 높이 찬양되었다.

의병의 戰力 역시 道學의 학문정신이 발현된 정신전력에 있었는데 죽천의 檄文을 보면 왕에게보다 ‘生民’ ‘生靈’으로 표현된 국민에 대한 우려를 더 하고 있다. ‘愛民·爲民·護民’의 충정을 가지고 외군의 선봉에 선 것이 여느 선비와 다르다. 이러한 ‘의병정신의 선구적 의의’ 만으로도 죽천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죽천집, 퇴계嫡傳, 왕자사부, 우계기, 의병장, 호남5현, 문강공, 용산서원, 주자서절요